

# '아시아 실리콘밸리'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

### 전주시, '청년이 찾아오고 미래 신산업 역동하는 강한 전주' 구현 위한 경제산업 비전 2030 제시

전주시가 오는 2030년까지 전주 경제의 판을 바꿔 청년이 찾아오고, 미래 신산업이 역동하는 강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전주시 경제산업 비전 2030'을 내놓았다.

앞으로 7년간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경제 일지리를 만들고, 미래 신산업발굴 및 기업 유치, 혁신창업의 성과를 내 동아시아의 경제산업 중심도시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전주시가 청년이 찾아오고 미래 신산업이 역동하는 활기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탄소·수소·드론 등 주력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나아가기 위해 창의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미래 신산업 경제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주시 경제산업 비전 2030'의 미래 분야 핵심전략으로 전주의 더 나은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산업의 판을 바꿀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먼저 시는 3대 주력산업인 탄소산업과 수소산업, 드론산업을 고도화·첨단화함으로써 전주 경제의 변화와 발

전을 위한 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산업의 경우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417억 원이 투입되는 탄소소재 부품정비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을 통해 탄소소재부터 중간재, 부품, 완제품에 이르는 탄소산업 밸류체인 고도화를 도모하고, 슈퍼커패시터 등 미래전자 육성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고품질 활성탄소 제조 및 제품화 기반 구축을 통해 탄소섬유 중심인 지역 탄소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향후 탄소복합재가 활용되는 첨단산업인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실증기반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수소저장용기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실증기반과 인력양성에도 집중해 수소 저장용기 특화도시로 조성하고, 드론레저스포츠 글로벌화와 드론산업 핵심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수소산업과 드론산업의 경쟁력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는 전주 경제의 판을 바꿀 3대 첫걸음사업 중 하나인 드론축구 월드컵 2024 참가 및 2025 드론축구 월드컵

성공 개최 등을 통해 전주시가 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의 글로벌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주를 세계적인 드론 레저스포츠의 중심지로 만들고, 주력산업의 변화를 선도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는 새로운 미래먹거리로 가득한 신산업의 도시로 진화하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 융합밸리 △데이터 사이언스 거점 구축 △디지털 혁신거점 구축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반도체 소부장 산업 생태계 구축 △혁신의로기기 실증기반 구축사업 등 메타전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신산업에 적극 투자한다.

시는 전주 경제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 우수한 기업 유치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당장 현재 추진 중인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에 탄소섬유와 활성탄소, 인조흑연, 카본블랙, CNT(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등 6대 소재 관련 강소기업을 유치한다.

무엇보다 시는 창의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청년들이 꿈을 꾸고, 키우고,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창

업의 도시이자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총 276억 원이 투입돼 조성될 전북대 산학융합 플라자에 이어 오는 2030년까지 총 1110억 원을 투입해 전북대 일원에 바이옴·복합, 디지털 문화콘텐츠 특화 창업을 위한 3만6000㎡(약만1890평) 규모의 캠퍼스 혁신파크를 구축한다.

또, 한옥마을 인근에는 오는 2026년까지 565억 원을 투입해 인문·기술 융합형 특화 창업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1만4848㎡(약 4491평)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해 전주 경제발전의 토대를 다지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혁신, 다각화, 우수한 기업 유치,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더욱 강한 경제도시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도시의 틀을 바꾸고, 경제의 판을 바꿔 사람이 모이고 잘 사는 전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욱기 기자



## 위기·고립가구 발굴·지원

### 전주시복지재단, 전문추진단 발대식·회의 개최

전주시가 사회적 고립 예방과 전문추진단 발대식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은 지난 7일 전주시민들의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모형 설계를 위한 '위기·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 전문추진단 발대식'을 가졌다.

전문추진단은 김운형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부단장인 기은하 큰나무종합사회복지관장, 유재언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보영 영남대학교 휴먼서비스학과 교수, 최정은 한국사회복지정보원 부연구위원 등 학계·현장·행정 등 전문가 8인으로 구성돼 있다. 전주시복지재단은 전주시 1인 가

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3년간 전문추진단을 주축으로 전주시 복지 현장에 맞는 위기·고립가구 발굴모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1차년도에는 위기·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모형을 설계하고 시범기관을 운영하게 된다. 이어 2차~3차년도에는 모형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 모형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위기·고립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추진단은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모형 설계, 시범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욱기 기자

## 일자리 창출로 청년 안정적 지역 정착 지원

### 전주시, 전주비전대·13개 지역기업과 '전주기업반 취업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와 전주비전대학교, 자동차생산·ICT 관련 13개 기업은 지난 7일 전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우병훈 전주비전대 총장업무대행, 13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주기업반 취업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가 지역 대학, 지역 자동차·ICT 관련 13개 기업과 손잡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시와 전주비전대학교, 자동차생산·ICT 관련 13개 기업은 지난 7일 전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우병훈 전주비전대 총장업무대행, 13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주기업반 취업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전주기업반 취업지원사업은 지역기업과 대학간 청년인재 매칭 및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주)아이씨앤씨, 우신산업, 울트라, 한국차체 등 완주군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기업들과 (주)건파워, (주)나

우리, (주)비전트리, (주)아람솔루션, (주)아이에스피, (주)엔콤, (주)지엔콤, (주)치논, (주)헤드아이티 등 ICT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게 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지역기업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전주비전대의 경우 '전주기업반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전주비전대 이공계 학생 30명을 기업이 원하는 현장 직무능력 강화 교육을 이수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와 전주비전대, 13개 참여기업은 양성된 전문인력을 우선 채용토록 힘쓰는 등 상호 교류와 협력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번 직무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교육기간 동안 60만 원의 훈련수당이 지급되며, 관련 직무를 산업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턴십 기회도 제공된다. 또 채용설명회와 기업 탐방 등을 통해 협약기업에 대해 이해할 기회도 주어진다.

특히,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협약기업에 취업하는 전주기업반 교육과정 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5년간 최대 4200만 원을 지원해 청년들이 지역기업에 장기근속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과 대학, 행정이 서로의 강점과 가치를 하나로 모아 도시의 미래가 될 청년들에게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청년이 보이는 변화하는 전주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 시민 의견 청취 '열린시장실' 개최

### 제2회 한바탕전주 시민대토론회 우수 참가자 8명 초청

전주시는 지난 7일 '제2회 한바탕전주 시민대토론회' 우수 참가자를 초청해 열린시장실을 개최했다.

지난 4월 18일 개최한 '제2회 한바탕전주 시민대토론회'에서는 '전주의 맛, 멋, 열정을 보여주는, 내가 만드는 전주 축제'를 주제로 90여 명의 참가자들이 총 11개팀으로 나뉘어 전주를 대표하는 축제의 콘텐츠와 명칭을 제안했다.

특별로 제안한 다양한 의견 중, 참가자들이 직접 현장 투표로 1팀의 '열기구 체험 콘텐츠'를 우수 콘텐츠로 선정했고, 3팀은 19건의 가장 많은 축제 콘텐츠를 제안했다.

이날 개최한 열린시장실은 우수 콘텐츠를 제안한 1팀과 최다 콘텐츠를 제안한 3팀의 우수참가자 8명을 초청하여 토론회 결과를 공유하고, 열린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범기 시장은 "시민들이 제안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이 더해져 오는 10월 새롭게 선보일 전주 대표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 반영될 수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전주, 강한 전주를 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